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도의회 상임위 통과…출범 초읽기

전남도의회, '전남 실익 의문' 두달 간 버티다 늑장 처리
호남 메가시티 실현 첫걸음…청사 위치·의회 구성 과제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동안 심사를 보류해왔던 도의회가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를 처리한 배경에는, 강력한 지방 분권 정책을 천명한 중앙 정치권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 단추인 광역연합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95회 정례회 제7차 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 10월 1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해당 규약안을 제출한 지 약 두 달여만이다.

당초 기행위는 광역연합이 출범할 경우 대도시인 광주시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인구와 자원이 광주로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심사를 보류해왔다.

전남의 실익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통합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강문성 기행위원장은 이날 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며 "전남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도의회가 입장을 선회해 규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 운영 방향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묶는 '5극 3특' 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전략을 국가 핵심 과제로 천명한 것이다.

전남도의회 의원 절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실질적 리더인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 기조를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와 권한 이양을 예고한 만큼, 더 이상 광역연합 출범을 늦출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완전한 행정 통합의 전 단계로, 두 자치단체가 교통, 관광, 경제 등 특정 분야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수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갖는 광역연합이 출범하면 개별 지자체가 해결하기 힘든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 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호남권의 경쟁력을 키우는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규약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규약 승인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승인 절차는 통상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초 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광역연합이 출범하더라도 청사 위치 선정이나 구체적인 사무 범위 조정, 의회 구성 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디지털저장장치 정보유출 걱정 '끝' 11일 광주 서구가 물품보관장소에 마련된 하드디스크 파기장치를 이용해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속도낸다

나주시·과기부와 협력체계 가동

전남도가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확정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전남도는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나주시, 과학기술정통부와 함께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과기부, 나주시와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협의에 나선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입주기업과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협의서에 담길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달 중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달 24일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산업단지 일대를 부지로 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에 참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공모사업 탈락 지자체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우선협상자격을 최종 확정지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오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나주는 지반 안전성과 드넓은 부지, 연구 인프라 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11일 대변인 명의의 환영문을 통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는 전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미래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선제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온 성과"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나주에 들어서면 세계 최고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모이는 국제 과학도시,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이 선순환하는 미래 첨단도시, 일자리를 찾아 청년 인재가 돌아오는 지방소멸위기 극복 선도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오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이다.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구현을 위한 7대 개발사업과 핵심기술 실증을 위한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영산강 유역 수계관리 제도 개선 방안 건의

정영균 전남도의회 특위위원장

전남도의회가 환경 당국에 나 영산강 유역의 수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9일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지역 수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주민지원 비율이 11.6%로 비중이 적다"면서 "타 수계지역 사례를 고려해 주민직접지원비 상한액을 가구당 최대 350만원으로 인상해 실질 보상을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특위는 이어 "현재 수계관리기금을 환경청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시·군 현장에서 문제가 많다"며 "전남도가 책임지고 감시와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부 방식을 '도(道) 경유'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정영균(순천1·민주) 특위 위원장은 "전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영산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수계 관리를 위해 현장 방문과 회의를 이어가며 지역 현안 해결 및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AI 사관학교, 고급과정으로 재도약…AI 인재 요람 부상

전문가 1528명 배출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로 6기 수료생을 배출한 '광주 AI 사관학교'는 내년부터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고급 심화 과정으로 체질을 개선해 재도약에 나선다.

광주시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9개월간 1300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 과정을 완주한 307명의 예비 AI 전문가들이 수료증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AI 사관학교는 이번 6기까지 총 1528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며 지역 AI 생태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1기부터 5기까지 수료생의 취·창업률이 71.2%에 달할 정도로 현장 적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6기 수료생 중에서도 이미 78명이 조기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올해 교육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더욱 정교해졌다. 기존 과정을 AI 모델링, 데이터 기술, 비즈니스 등 5개 직무 트랙으로 세분화하고 18개 기업과 58건의 실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다.

이날 수료식과 함께 열린 채용박람회에는 이스트소프트 등 유망 기업 23곳이 참여해 인재 영입에 열을 올렸다. 성적 우수자 4명에게는 내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6' 참관 특전이 주어졌다.

내년부터 AI 사관학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광주시는 확보한 국비 105억원을 투입해 기존 실무형 교육을 'AI·SW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전면 개편한다. 단순 코딩 인력을 넘어 미래 기술을 선도할 최고급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리동네 나눔가게 함께해 주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맛있는 피자를 선물한 인천의 피자가게를 아시나요?"

「우리동네 함께하는 나눔가게」는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해당지역 거점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기부내용을 조정합니다.)

SSN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984-8947	SSN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686-7702	SSN 순천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752-8206
SSN 나주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333-8946	SSN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 T. 061-793-0059	SSN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832-2500
SSN 화순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373-6800	SSN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453-9996	SSN 영광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351-2240
SSN 장성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393-5009	SSN 진도군사회복지협의회 T. 061-544-3888	

나눔가게 참여 소상공인 분들 혜택: 나눔가게 블로그 홍보 / 나눔가게 현판증정 / 기부금 영수증

함께하는 나눔가게 ('25.11. 현재)

본 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고흥: 뉴고흥마트, 터미널이발관, 가화루, 헤어바이송, 카페보아츠, 녹동진맛김치, 동명카츠, 허니데이즈, 세나클, 파리바게뜨(고흥점), 이근수베이커리(고흥점), 하얀마을제과점, 현정이네떡집, 뚜레쥬르(고흥점), 엉클제이(고흥점), 준베이커리, 헬로팬닭갈비 고흥녹동점
광양: 정통광양기정떡, 샐프레소, 매화정, 류가헤어갤러리, 설빙, 미향, 만수정, 파리바게트(광양원예농협점), 다사랑피부샵
나주: 한돈명가, 쉴가헤어 HEADSPA, 정다운식당, 설화베이커리, 그림빵집, 곰바우 숯불갈비, 지정환 피자 나주점
목포: 시구랑절구랑, 형제상회, 한우랑축산, ㈜세이프컴퍼니, 유달콩물, 이정원미용실, 목포샌드
무안: 동명아트프라자, 임태숙헤어, 자유변신미용실, 무안화원, 충만치킨(무안점), 밀베이커리, 응급실 국물떡볶이, 베스킨라빈스 전남무안점, 베이크모드, 중식당 모란, 815제빵소, 365에이스치과의원, 더샵헤어갤러리, 현경맛나곰탕, 카페 프롬, 무안BYC, 하이칼라, 무안낙지랑돼지랑, 자매식당, 승달가든, 마샬헤어샵, 하림 맥시칸, 디저트카페 581, 카페 불라, 쌀베이커리 태산(일로지점), 무피(moopy), 대원유통
순천: 가파도생선구이, 우리돈오리, 박구윤회관, 먹물, 삼백정, 양평해장국 금당점, 원조마포숯불구이, 자금성, 텃밭, 포수동태탕, 순정식당, 일성곱창, 바우네나주곰탕, 대박집, 용식이삼겹, 정현미헤어라인, 영애씨순천아랫장석쇠불고기, 향토추어탕, 나눌터
여수: 엘카페
영광: 샐러드 있어 YOU, 충만치킨, 김치스토리, 선행공동체 일곱빛깔 - 안터상회, 한국의 멋 설궁, 온숲테르베르트, 밝은안경콘택트, 김밥조아, 이로운세상
장성: B.H.C, 지아연헤어, 대성정육회관, 애나드베이커리, 피자지오, 장원숯불갈비, 리버사이드, 영천두부마을, 부영침구, 우리동네사진관, 더바름초밥, 장성삼성대리점, 상무볼링장, 김치매일담그는집
진도: 까까미용실, 효자마트, 자금성
화순: 반찬마을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T. 061-285-8946